

## 편집증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작용\*

황 성 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이분법적 사고가 편집증에서 주요한 정신병리적 취약성으로 작용함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편집증 집단이 이분법적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하며, 편집증적 특성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생활 사건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가정을 대학생 표집에서 검증하였다. 이분법 사고 지표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 편집 성향 집단(69명)은 통제 집단(67명)에 비해 이분법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편가르기’라는 하위 척도에서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어서, 연구 표집 전체(338명)를 대상으로 편집증을 종속변인으로, 이분법적 사고와 생활 사건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이분법적 사고는 대인관계 생활사건(예: 비난, 거절 등)과 상호작용하여 편집성향을 예측하였고, 반면에 비대인관계 생활사건(예: 금전적 어려움, 질병)은 이분법 사고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즉, 생활 사건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집 성향을 증가시키되, 이분법 사고의 이러한 병리적 작용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사건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정한 대로 이분법 사고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편집증을 유발하거나 증폭시키는 정신병리적 취약성 요인임이 지지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치료적 함의와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이분법적 사고, 편집증, 대인관계 생활사건, 편가르기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중 ‘연구 4’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이분법적 사고는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Beck, 1995; Beck & Freeman, 1990; Beck, Rush, Shaw, & Emery, 1979; Linehan, 1993). 다양하고 연속적인 가능성과 선택지 가운데 둘을 고른다고 할 때, 선택되는 두 개의 값은 극단적이기 쉽다. 예컨대, ‘그렇다.’ 대 ‘아니다.’, ‘옳다.’ 대 ‘그르다.’, ‘선(善) 대 ‘악(惡)’, ‘애(愛) 대 ‘증(憎)’ 등의 판단이 이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논리,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식의 사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정신병리 취약성으로서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 사고가 집약적으로 발현되는 정신병리는 경계선 성격 장애이다. 경계선 성격 환자들은 세상에 대해 회색의 중간 지대를 보지 못하고, 대신에 극단적이고 양분법적으로 평가한다(Arntz, 2004; Pretzer, 1990). 이분법 사고는 두개 이상의 상호 모순된(즉, 정반대의) 신념체계를 빠르게 연이어서 활성화하고 반전시키므로, 경계선 성격이 정서, 자기상,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Wenzel, Chapman, Newman, Beck & Brown, 2006).

그러나 경계선 성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분법 사고는 우울증(Teasdale, Scott, Moore, Hayhurst, Pope, & Paykel, 2001), 자살(Litinsky & Haslam, 1998), 섭식 문제(Cohen & Petrie, 2005), 역기능적 완벽주의(Burns & Fedewa, 2005)와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문제 해결 결핍(Weishaar, 1996),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Mraz & Runco, 1994; Rotheram-Borus, Trautman, Dopkins & Shrout, 1990), 만성 통증

(Dyck & Agar-Wilson, 1997), 공격적 행동(Eckhardt & Kassino, 1998) 등에서도 이분법 사고가 인지적 왜곡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최근 MMPI로 측정된 정신 병리와 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에 따르면, 이분법적인 사고는 전반적인 부적응과 방어의 약화, 부정적 정서, 분노와 소외의 경향, 기분이 들떠 있어서 충동조절을 못하는 모습, 지각이 왜곡되고 사고 과정이 흩어지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었다(황성훈, 이훈진, 2009). 따라서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 병리에 걸친 취약성 요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 편집증의 분리된 구조와 이분법 사고

본 연구에서는 이분법 사고의 정신병리적 작용을 탐색하는 또다른 노력으로서 편집증을 다루려고 한다. 즉, 이분법 사고가 편집증에서 주요한 정신병리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려 한다.

편집증에 대한 정신 역동적 설명으로는 분열-편집증적 자리(schizoid-paranoid position)의 경험 조직화 방식인 ‘분리(splitting)’에 의지한다는 이론이 제시된 바 있다(Gabbard, 2000). 정신 역동적 개념화에 따르면 편집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생존을 위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둘로 나누고, 나쁜 것은 모두 외부의 인물에게 투사한다. 이들은 내면적으로는 상처받아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나, 안 좋은 일이나 어려움에 대해 타인을 책망함으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good me, bad other).”는 식으로 자아상을 고양시킨다(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따라서 내면의 낮은 자존감과 표면의

고양된 자존감이 대비되는 자기상의 분리를 이룬다(Akhtar, 1990; Meissner, 1986). 이렇게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편집증의 자기상은 이분법적 사고가 나오는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 개선이 있을 뿐, 이분법 사고와 분리를 편집증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관련된 연구로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분리(splitting)의 방어 기제가 간이 정신진단 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Derogatis, 1977)의 편집증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는 보고(김정옥, 2003)를 찾을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리 방어를 사용하는 편집증에서 이분법 사고의 작용을 조명하는 연구에 관심을 둘만 하다.

#### 편집증에서 이분법 사고의 작용

편집 성향을 이루는 대표적인 요소로 피해 의식과 예민성을 들 수 있는데(Harris & Lingoes, 1968), 이는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이분법 사고 지표의 하위 요인중 하나로 ‘편 가르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황성훈, 2007), 이분법 사고는 내 편 대 상대방, 나 대 남, 동지 대 적과 같이 대인관계의 의미를 양분적으로 판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일치하게, 이분법적 사고와 편집 척도의 상관이 .56~.63으로 이분법 사고 변량의 31~40%를 설명한다(황성훈, 2007). 또한 이분법 사고는 MMPI 척도중 세상에 대한 불신, 냉소주의, 분노, 적대감을 반영하는 척도들과 밀접히 관련되는데(황성훈, 이훈진, 2009), 이러한 MMPI 척도들은 편집증의 주요 특징과 일치하므로 편집증적 성향과 이

분법 사고의 밀접성은 한층 시사된다.

특히 편집 성향자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극단적인 양자택일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Auchincloss & Weiss, 1992). 어떤 대상이 자신과 단단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어서 줄곧 나만을 생각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대상은 나와 정서적으로 무관하다는 관계의 양분법을 보인다. 이렇듯,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립적인 구도에서 파악하므로, 매우 적대적인 해석(즉, 피해 의식)과 매우 우호적인 해석이 있을 뿐이고, 중립 지대가 없게 된다. 이에 더해, 사소한 일에 대한 이분법적 오해 때문에, 우호적 세력이 적대적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는 불안정해지고 다수의 적들과 소수의 그나마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동지 사이에서 고립되게 된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분법 사고가 편집증에서 주요한 정신병리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려 한다. 편집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분법 사고에 의지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에 따라 ‘이것 아니면 저것’,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것이며, 그 결과, 피해의식, 불신, 적대감 등의 편집증적 특성은 유지되거나 강화되리라는 가정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언을 검증할 것이다:

**예언 1.** 편집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예언 2.** 생활 사건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내 편 대 네 편, 아군 대 적군)이 편집

성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 방 법

한결음 더 나아가, 편집증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주요 특징이며, 이분법적 판단이 주로 인간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Auchincloss & Weiss, 1992), 이분법적 사고의 편집 증폭 작용은 생활 사건중에서도 ‘대인관계’에 관련된 것에 특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예언을 설정할 수 있다.

**예언 3.** 이분법 사고의 편집 증폭 작용은 대인관계와 무관한 생활 사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금전적 어려움, 학업 스트레스, 진로 문제, 질병 등과 같이 대인관계와 거리가 먼 스트레스 사건(이를 비 대인관계 생활사건이라 부름)에 대해서는 이분법 사고를 하더라도 편집 성향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다. 예언 1, 2, 3을 종합하면 ‘편집증적 특성들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생활 사건들을 이분법적으로 오해석한 결과이다.’는 가정이 검증되는 셈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생활 사건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집 성향을 증가시킬 것이되, 그 병리적 작용은 대인관계 생활 사건에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 연구대상

서울의 한 종합대학교 수원의 한 종합대학의 학부생 338명을 연구 표집으로 했다. 평균 연령은 21.97세(표준편차 3.32)였고, 남/녀 비율은 200명/138명이었다. 338명의 전체 표집중 편집 척도에 따라 상위 20%(편집 척도 총점 52점 이상)를 편집 성향 집단(69명)으로, 하위 20%(편집 척도 총점 31점 이하)를 통제 집단(67명)으로 선별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없었으며,  $t(134) = 1.81$ ,  $m$ , 남녀 분포에서도 집단 차이는 없었다,  $\chi^2(1, N=136) = 0.002$ ,  $m$ .

## 측정도구

### 편집 척도(Paranoia Scale)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이훈진, 원호택, 1995).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8 ~ .92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로 보고되었다.

표 1. 편집/통제 집단에서 편집 척도와 인구학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편집성향집단	통제집단	차이 검증
연령(세)	21.43(2.67)	22.27(2.72)	$t(134)=1.81$
편집증 척도	2.97( .36)	1.29( .18)	$t(134)=34.24^{***}$
남/녀	43/26	42/25	$\chi^2(1, N=136)=.002$

† 괄호는 표준편차임.

\*\*\*  $p < .001$ .

**개정된 이분법 사고 지표(DTI-30R)**

이분법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황성훈(2007)이 개발한 척도로서 30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이분법 사고가 연속적인 대안중 양극단을 취하는 사고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다. 양극단으로는 a) 잘한 것 대 못한 것(즉, 성공 대 실패), b) 선 대 악, c) 전부 대 전무, d) 내 편 대 네 편 등이 선택되었다. 이런 개념적 틀로부터, “잘한 것이 아니면 못한 것이다(a).”, “선한 대상과 악한 대상을 분명히 판가름한다(b).”, “모가 아니면 도이다(c).”, “동지가 아니면 적이다(d).” 등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92였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 요인 분석에서는 중간이 없는 이분법 사고(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이 분명하다.”), 실무율적 사고(예: “모가 아니면 도이다.”),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예: “절반의 실패는 전부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편 가르기(예: “나의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린다.”), 학업에서의 이분법(예: “지각하느니 차라리 결석하는 편이 낫다.”), 어법상의 이분법(예: “단정적인 표현을 잘 사용 한다.”) 등 모두 6개 요인이 얻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요인을 이분법 사고 지표의 하위 척도로 삼아 분석하였다.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척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측정하는 척도이다(전경구, 김교현, 1991). 사회적 관련 스트레스 21개 문항과 자율성 관련 스트레스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생활사건에 대해 경험빈도와 중요도 각각을 3점 척도에 평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지표는 경험빈도에 중요성을 곱한 값으로 삼았다. 각 영역별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66~.81로 보고되었다.

여기에 연구자가 편집증과 관련될 수 있는 12개의 생활사건(모욕, 무시, 비난, 거절, 강요, 이별, 죽음 등)을 더 추가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모두 54개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54문항짜리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경험빈도 평정과 중요성 평정에서 모두 .90이었다. 스트레스 지표는 연구 가설에 따라 대인관계 영역 스트레스(비난, 말다툼, 갈등, 오해, 친구 사귀기 등)와 나머지의 비 대인관계 영역 스트레스(금전적 어려움, 학업 스트레스, 진로문제, 질병 등)로 나누어 계산했다.

**설계 및 분석**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편집 척도에 따라 선별된 편집 성향 집단(69명)과 통제 집단(67명)을 대상으로 이분법 사고의 정도를 비교했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대학생 338명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편집 척도 점수를 종속 측정치로 중다 회귀 분석을 하였다. 투입된 회귀 모델은 생활사건의 주효과항,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항, 그리고 둘의 상호작용항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이분법 사고의 집단간 차이**

편집 성향 집단이 이분법 사고 지표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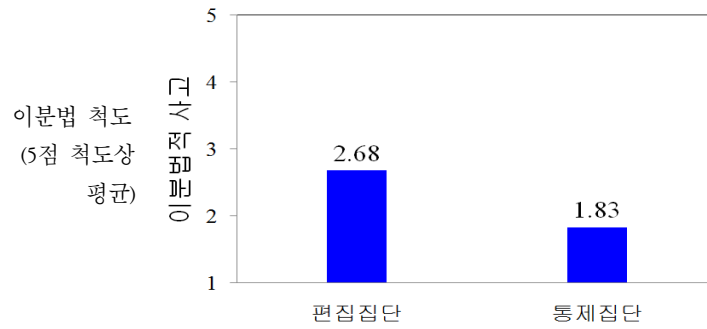


그림 1. 편집집단과 통제집단의 이분법 사고 평균

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t(134) = 9.28, p < .001$ . 그림 1에서 보듯이 편집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극단적인 양분 사고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이분법 사고 지표의 하위척도별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하위척도 모두에서 편집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간없는 이분법  $t(134)=-7.41, p < .001$ ; 실무올적 사고  $t(134)=-7.61, p < .001$ ; 성공 대 실패의 이분법  $t(134)=-7.40, p < .001$ ; 평가르기  $t(134)=-8.68, p < .001$ ; 학업상의 이분법  $t(134)=-4.64, p < .001$ ; 어법상의 이분법  $t(134)=-5.68, p < .001$ .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편집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여섯 개의 하위 척도에서 더 높은 추세를 보이되, ‘편 가르기’ 하위 척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더 증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섯 개의 하위 척도를 종속측정치로 하고, 집단을 독립 변인으로 해서 반복 측정치를 갖는 다변인 분산 분석 (repeated measure MANOVA)을 실시하였는데, 하위 척도와 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F(5, 130) = 3.56, p < .01$ . 이 상호작용의 원천을 분석하기 위해, 여섯 개 하위척도를 순서대로 두 개씩 비교하는 대조 방법(이것이 SPSS의 명령어로는 difference contrast이다)을 사용했다.

그 결과, ‘성공 대 실패의 이분법’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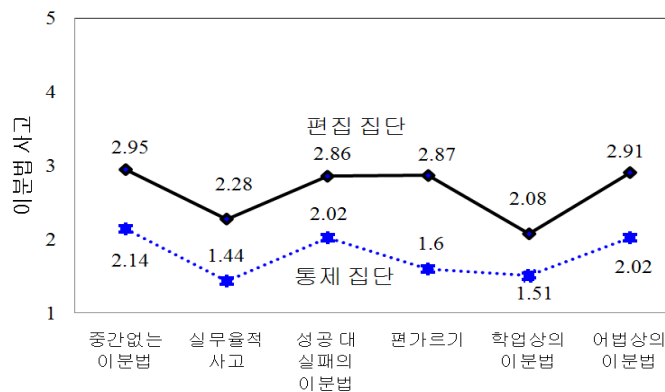


그림 2. 편집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이분법 하위척도 평균

르기'의 대조에서 하위척도와 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  $F(1, 134) = 7.76, p < .01$ , '편가르기'와 '학업상의 이분법'의 대조에서도 상호작용이 유의미했으며,  $F(1, 134) = 15.70, p < .001$ , 나머지 대조에서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찾을 수 없었다. 즉, 두 집단의 이분법 하위 척도가 대부분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나(즉, 하위척도와 집단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음), 유독 '편가르기'를 포함하는 대조에 이르러 편집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른 추세를 보인 셈인데(즉, 하위 척도와 집단이 상호작용함), 이는 '편가르기'에서 집단 차이가 더 커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분법 사고의 하위척도에서 편집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일반적으로 높으나, 그 차이의 폭은 대인관계 영역의 편가르기에서 더욱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표집에 대한 중다회귀

전체 표집인 338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편집 척도를 종속측정치로 하고, 대인관계 생활사건의 주효과향,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향, 그리고 둘의 상호작용향으로 이뤄지는 모델을 회귀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 모형은 편집증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주었다,  $R^2 = .42$ ,

$F(3, 323) = 77.46, p < .001$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인 생활사건의 주효과와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미하였으며, 이보다 상위의 효과(higher-order effect)로서 대인 생활사건과 이분법 사고의 상호작용이 편집 성향을 의미 있게 설명했다.

대인 생활사건과 이분법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도해하면, 그림 3과 같다. 편집 증상은 대인 생활사건이 많고 동시에 이분법적 사고를 할수록 높아진다. 둘중 하나만 높으면 편집 경향은 중간 수준이고, 둘 모두가 낮을 때, 편집 성향은 가장 낮아진다. 예측한 대로, 편집 증상은 오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약속에서 바람 맞는 것, 비난, 다툼, 갈등 등 대인관계상의 생활사건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이분법 사고의 편집 반응 증폭작용은 대인관계 영역에서만 특정적임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학생 스트레스 척도중 대인 관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스트레스(이를 편의상 비 대인관계 스트레스라 부름)를 회귀 모델에 교체 투입했다. 비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주효과향, 이분법 사고의 주효과향, 그리고 둘의 상호작용향으로 구성되는 회귀모형이 편집증을 의미 있게 설명했다,  $R^2 = .33, F(3, 323) = 52.69, p < .001$ .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이분법 사고

표 2. 편집증을 예측하는 중다 회귀 방정식의 회귀 계수: 대인 관계 영역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
상수	.58	-	-
대인관계 생활사건(A)	.98	.77	4.82***
이분법 사고(B)	.56	.52	8.40***
A × B	-.19	-.49	-2.74**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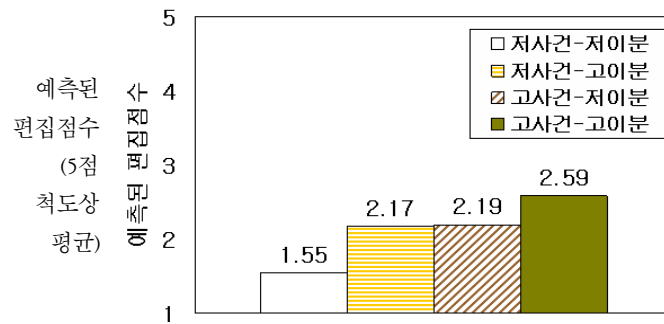


그림 3. 대인관계 생활사건과 이분법의 상호작용.

회귀상의 상호작용을 도해하기 위해서 각 변인의 1 표준편차 위를 고(高) 집단의 값으로, 1 표준편차 아래를 저(低) 집단의 값으로 잡고, 이를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로 이뤄진 회귀 방정식에 대입하여, 예측된 편집 점수를 얻음.

표 3. 편집증을 예측하는 중다 회귀 방정식의 회귀 계수: 비대인 관계 영역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t
상수	.58	-	-
비 대인관계 생활사건(A)	.98	.26	1.45
이분법 사고(B)	.56	.54	6.30***
A × B	-.19	-.11	-.52

\*\*\* $p < .001$ .

의 주효과만이 유의했다. 비 대인관계 생활사건은 편집증을 직접 설명하지 못했으며, 이분법 사고와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예측한 것처럼 이분법 사고가 피해 의식과 예민성을 키우는 병리적 작용은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사건에 국한되어 있었다.

### 논 의

편집 성향이 있는 대학생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이분법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언 1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편집 집단은 중간이 없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며, 전부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실무울적 판단을 하고, 사태를 성공이 아니면 곧 실패라고 양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법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에 더해, 편집 성향 집단을 더 분명하게 구분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차원은 ‘평가르기’였다. 즉, 불신, 적대감, 피해의식, 고립 등이 특징인 편집 성향 집단은 이분법 사고의 다양한 요소들이 고르게 높되, 특히 ‘평가르기’ 요인에서 뾰족한 상승(spike)을 이루는 프로파일을 보인다. 이분법 사고 중에서도 대인관계 장면에서 상대방이 누구의 편인지를



먼저 파악하려 하고, 동지가 아니면 적으로 가르는 판단 양식이 편집 성향의 더 확실한 표식(marker)이라고 볼 수 있다. 편가르기식 이분법 사고는 편집증의 특징적인 인지적 왜곡인 셈인데, 이는 편집증의 진단과 치료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성향 = 대인관계 생활사건 × 이분법적 사고』

편집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분법 사고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극단적인 판단 양식이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적용될 때 편집 성향은 더 강해지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즉, 예언 2와 일치하게, 이분법적 사고가 높고, 동시에 거절, 비난, 무시, 갈등 등의 관계 스트레스도 높을 때, 편집증적 경향은 더 증가하였다. 편집증에서 이분법 사고의 작용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본 연구는 대학생 표집을 대상으로 편집증적 성향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 사건의 의미를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 구도로 해석한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분법적 사고는 일종의 인지적 취약성(diathesis)로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결합할 때, 편집 증상이라는 정신병리를 출현시키거나 증폭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분법적 사고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다양한 정신병리에 추가해서, 편집증의 영역에서도 취약성 요인이라는 가정은 지지되었다.

또한 이분법 사고가 편집 성향을 상승시키는 작용은 대인관계 영역의 생활 사건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분법 사고를 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대인 관계와 무관한 것이라면 편집증적 반응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즉, 예언 3이 말하듯이, 성취, 경제, 신체적 질병

등 대인 관계적 의미가 없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분법 사고는 작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분법 사고는 거절, 무시, 비난, 오해 등의 대인 관계 자극과 상호작용하는 정신병리 취약성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편집성향 = 대인관계 생활사건 × 이분법적 사고』의 가설적 등식은 성립하였다.

이렇듯 편집증은 대인 관계를 왜곡하는 특유의 인지적 오류(즉, 편가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립적 구도에서 파악하므로, 매우 적대적 해석과 매우 우호적 해석이 있을 뿐이고, 중간의 완충 지대가 없게 된다. 예컨대 편집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고, 친구가 혹시 적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 어떤 사람과의 좋은 경험이 사소한 실망으로 인해 완전히 지워질 수도 있는 (Gabbard, 2000)’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사소한 일에 대한 이분법적 오해 때문에, 우호적 세력이 적대적 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겪는 대인 관계의 불안정성과 고립이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 치료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편집증의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이분법적 사고가 편집증의 인지적 취약성(diathesis) 중 하나로 확인된 것이므로, 임상현장에서 편집증의 측정치로서 적대감, 불신, 경계 등의 정서적 변인이나, 피해 의식과 사고 장애 같은 현실 검증력 변인이외에도 이러한 인지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섯 개의 하위척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되 특히 평가르기 척도에서 차이의 폭이 크게 벌어지는 이분법 사고 지표의 프로파일은 편집증의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증이 이분법 사고를 사용하되, 그 병리적인 영향은 대인관계 영역과 비대인관계 영역에서 다르다는 발견은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분법적 사고가 특정한 영역에서는 편집 증상을 만들어내나, 또 다른 영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인생은 모가 아니면 도이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편집 성향이 있는 사람이 친구의 사소한 비난에 대해서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배신당했다.”고 반응하나, 반면에 최근에 발견된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별다른 과장이나 왜곡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대비에 대한 자각은 이분법적 사고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의 인지적 해석과 반응을 대인관계 상황과 비대인관계 상황에 걸쳐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왜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사는 병이 아니면 죽는 병이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이러한 탈이분법적인 담담한 판단을 적용할 방법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영역은 이분법적 사고의 정신병리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종의 예외 혹은 치외법권 지역인 셈이다. 내담자나 환자가 극단적인 양분 논리에 지배받기도 하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간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치료적일 수 있다. 인간관계상의 부정적 사건을 이분법 논리로 증폭시키는 모습이 전부 아니며, 이분법적 사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통합적인 시각 속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떠오르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예외 상황이 늘어나도록 치료자는 내담자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의 대상은 편집증 척도가 높은 대학생 집단이었다. 정상적인 학업 및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표집으로부터 얻은 결과이므로, 증상이 더 심각하고 역기능이 뚜렷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이분법 사고의 편집 증상 증폭 작용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편집증 집단이 이분법 사고가 높다는 현상을 기술하였을 뿐, 그 원인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편집증의 역동적 병인론으로 초기 유년기 동안의 적대적인 양육 경험이 제시된다(Cameron, 1963). 아이는 부모의 처벌과 학대를 받아서 가학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고, 사람들에게 가학적 대우를 기대하고 위협의 신호를 경계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일관되게, Berke, Pierides, Sabbadini와 Schneider(1998)는 편집증이 어린 시절의 상처, 외상, 굴욕, 창피, 학대 등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고, 대학생 편집 성향 집단도 자신들이 부모의 학대, 과잉 간섭, 비밀관성, 방치 등을 겪고 성장했다고 회고했다(김지영, 2002; 이훈진, 2004).

즉, 외상에 가까운 가학적인 양육이 편집증의 병인론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편집 집단이 본 연구에서 조명되었듯이 비난이나 거절 같은 대인관계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으로 새기고, 상대가 자신을 공격할

사람인지 아니면 보호할 사람인지를 구분지어 애쓰는 이유를 헤아릴 수 있다. 또한 외상 경험과 이분법적 사고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가 향후 이뤄진다면, 외상이라는 극단적인 경험이 이분법적 사고라는 극단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국을 남기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인지적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욱 (2003). 방어 성숙도와 상담자 개입이 심리증상 및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 (2002).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2004).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 381-395.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전경구, 김교현 (1991).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도의 개발: 제어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137-158.
- 황성훈 (2007). 정신병리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훈, 이훈진 (2009). 이분법적 사고와 MMPI로 측정된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임상, 28, 1-14.
- Arntz, A.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 A. Beck, A. Freeman, & D. D. Davis, et al. (Eds.),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 (2nd ed., pp.187-21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Auchincloss, E. L., & Weiss, R. W. (1992). Paranoid character and the intolerance of indiffere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0, 1013-1037.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J. S. (1995). *Cognitive therapy: Basics and beyon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A. T., Rush,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and Mark Paterson.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erke, J. H., Pierides, S., Sabbadini, A., & Schneider, S. (1998).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Routledge: London.
- Burns, L. R., & Fedewa, B. A. (2005). Cognitive styles: Link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03-113.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ohen, D. L., & Petrie, T. A. (2005). An examination of psychosocial correlates of disordered eating among undergraduate women. *Sex Roles*, 52, 29-42.

- Derogatis, L. R. (1977). *SCL-90R Manual-I*.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yck, M. J., & Agar-Wilson, J. (1997). Cognitive vulnerabilities predict medical outcome in a sample of pain patients. *Psychology, Health and Medicine*, 2, 41-50.
- Eckhardt, C. I., & Kassino, H. (1998). Articulated cognitive distortions and cognitive deficiencies in maritally violent me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2, 231-250.
- Gabbard, G. O. (2000).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arris, R., & Lingo, J. (1968). *Subscales for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imeographed materials, The Langley Porter Clinic.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Litinsky, A. M., & Haslam, N. (1998). Dichotomous thinking as a sign of suicide risk on the TA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1, 368-378.
- Meissner, W. W. (1986). *Psychotherapy and the paranoid process*. Northvale, NJ: Jason Aronson.
- Mraz, W., & Runco, M. A. (1994). Suicide ideation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ur*, 24, 38-47.
- Pretzer, J. (1990).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 A. Beck, & A. Freeman, et al. (Eds.),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 (pp. 176-20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otheram-Borus, M. J., Trautman, P. D., Dopkins, S. C., & Shrout, P. E. (1990). Cognitive style and pleasant activities among female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554-561.
- Teasdale, J. D., Scott, J., Moore, R. G., Hayhurst, H., Pope, M., & Paykel, E. S. (2001). How does cognitive therapy prevent relapse in residual depression? Evidence from a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347-357.
- Weishaar, M. E. (1996). Cognitive risk factors in suicide. In P. M. Salkovskis (Ed.), *Frontiers of cognitive therapy* (pp.226-249). New York: Guilford Press.
- Wenzel, A., Chapman, J. E., Newman, C. F., Beck, A. T., & Brown, G. K. (2006). Hypothesized mechanisms of change in cognitive 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503-516.
- 원고접수일 : 2009. 6.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9. 7. 8.  
게재결정일 : 2009. 7. 26.

## 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in Paranoia

**Seong-Hoon Hw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Hoon-Ji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DT) as a major vulnerability in paranoia, testing the hypotheses that paranoid persons may use more DT and that paranoid symptoms may result from the dichotomous interpretation of interpersonal life events. When measured via the Dichotomous Thinking Index, the paranoid group (69 college students screened with Paranoia Scale) used DT more than control group (67 college students screened with Paranoia Scale) did. There was a larger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n the 'social splitting' subscale, which divides persons into my side vs. your side, friend vs. enemy. We subsequently analyzed the whole sample (338 persons) by means of multiple regressions calculated with the paranoia score as a dependent measure and with each DT and life even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DT interacted with interpersonal life events (such as criticism, and refusal) to predict the paranoid symptoms. However, non-interpersonal events (such as financial difficulty, and disease) didn't interact with DT in predicting paranoia. That is, the results showed the pathological functioning of DT in paranoia is confirmed but confined to the domai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DT plays a role as cognitive vulnerability in paranoia. Finally, we discu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esen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es.

*Key words* : dichotomous thinking, paranoia, interpersonal life event, social splitting